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여느 때처럼 운동장 트랙을 따라 돌고 있었다. 선선한 바람에 땀이 서서히 말라가는 느낌과 차오르는 숨을 내뿜는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25바퀴를 뛰어야 했다. 다음 달이면 시에서 열리는 육상 대회에 나가야 하므로 지금부터 연습 겸 체력 관리를 해야 했다. 손목을 고정시킨 밴드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머리카락도 온통 땀으로 젖고 숨을 뱉을 때마다 온몸의 땀냄새가 코로 확 올라왔다.

15바퀴를 뛰고 잠시 운동장 스탠드로 돌아왔다. 바나나와 마늘, 우영을 갈아 만든 셰이크를 한 손에 잡았다. 냄새가 역겹고 불쾌했다. 바나나는 에너지 보충을 위해 갈아 넣었고 마늘과 우영은 코치한테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서 넣어 먹게 되었다. 지옥에서 온 듯한 바나나 셰이크를 한입에 들이켰다. 썩은 한약과 비슷한 맛이 났다. 하지만 이 역겨운 맛이 마냥 싫지 않았다. 지옥 바나나 셰이크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고서 고개를 들고 창문을 올려다보니 반 아이들은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고 심지어 오늘은 육상부 아이들도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난 오늘도 어제처럼 멈추지 않고 뛰었다. 뛰면 땀수록 어제 교무실에서 했던 대화가 생각났다.

“오늘도 뛰겠다고? 너 어제도 뛰었잖아? 몇 시간 뛰었지?”

곱슬곱슬한 파마머리 스타일을 고수하는 김 선생님은 질문이 많았다.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달고 사는, 그야말로 질문 괴물이었다. 내가 일일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물음표를 쏟아부었다. 사실, 성의껏 대답할 생각도 없었다.

“애, 너 이름이 뭐였지? 김…”

“김현아요.”

“아, 그래 김연아,”

“아뇨, 현-아-요.”

“아… 그래, 김형아.”

김선생님은 무지 당황했는지 빠르게 말하다가 내 이름 중간 글자에서 발음이 섰다. 나는 그러려니 하고 다시 정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2학기나 보냈는데 아직도 본인 반 학생 이름을 못 외우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고 표정이 굳었다. 답임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은 듯한 입을 열었다.

“너 몸 건강 나빠지는 것 아니니? 오늘 좀 괜찮다고 막 달리려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려? 수업은 언제 들어올 거고? 너는 하도 수업에 안 참여하니까 좀 보고 싶다, 현아야.”

답임은 지치지도 않고 떠들었다. 답임이 내는 소음은 한쪽 귀로 들어오고 그대로 반대쪽으로 나갔다. 답임의 말은 사람의 기를 빨아들이다 못해서 영혼을 탈주하게 하는 대단한 힘이 있었다.

나는 질문의 반의 반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꼭 질문 양에 비례할 필요는 없으니까. 더욱이 그 말들이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전 의식도 북돋워주지 않는다면.

“아니, 너 체력이 되니? 안 쉬고 뛰다가 몸 혹 가는 거 아니야?”

담임이 반 진심 반 건성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유, 김 선생님, 우리 올케의 언니의 딸도 육상인가 그거 하는데 하루 종일 뛰어. 그래도 안 지쳐. 선수면 아무리 뛰어도 썩썩할 텐데 뭘 걱정해. 선수라며? 그렇지?”

갑자기 옆의 옆 책상에서 명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명 선생님은 365일 꼬장꼬장한 표정을 유지하며-적어도 학교에서는-꼰대 같은 말을 하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명 선생님의 말이 담임의 말을 끊어주다니 곳 타이밍이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눈빛으로 선생님을 쳐다봤다.

“아휴, 저 눈빛에 대고 뭘 더 말하겠어. 애, 네 맘대로 해라.”

“네, 감사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만 달리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만 난 그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다. 이번 기회에는 금상 아니면 은상이라도 타서 자랑스럽게 선배를 만나야 했다. 숨을 몰아쉬고 잠깐 무릎을 짚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뛰었다. 뛰면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숨이 파, 하고 크게 터져 나왔다. 하늘에는 오늘따라 온화한 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태양이 떠있고 태양에 선배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내가 육상을 좋아하게 된 이유인 그 선배. 짙은 눈썹이 참 잘생기고 자연적인 갈색 머리카락이 하늘거리는 선배, 언제나 학교 후에도 열심히 뛰던 선배. 육상을 한 지 2년이 됐으니 그 선배를 마음에 품은 시간도 벌써 2년째다.

1학년 봄날이었다. 내 책상은 너무 낯설도록 연한 갈색이었다. 첫날은 교실에서는 오래된 퀴퀴한 사물함 냄새와 공기청정기 냄새가 섞인 아주 낯선 냄새가 났다. 고등학교 입학식을 하루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다니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대단했다. 그것도 대구에서 서울로. 어쩌면 멍청한 건지도 모르겠다. 1학년부터 낯선 지역의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 내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원래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지 않았다. 친구를 만들어서 좋은 점을 느끼적이 없었다. 종종 다른 애들이 끼리끼리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친구와 함께 있는 재미를 모르는 내가 멍청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새학기였으므로 따로 친구들에게 내 소개를 할 기회도 없이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 되었다.

나는 새 학교에 오자마자 동아리 활동 목록을 살폈다. 하교 후에 집에만 걸 상상했을 때 아빠만 있는 집에서 서먹서먹하고 냉랭한 바람이 부는 공기를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최대한 집에 빨리 가지 않으려고 동아리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내 눈은 수많은 글씨를 지나쳐서 ‘육상부’에 꽂혔다. 나는 육상부를 신청하기 위해 전학 온 지 첫날부터 낯선 2학년 선배를 찾아갔다. 낯설고 긴 복도를 지나 한 교실이 눈에 들어왔다. 문 위의 팻말에 ‘육상부’라고 쓴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미닫이 문을 열었다. 한 선배가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서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육상 신청하려고 왔어?”

“네.”

나는 내 키의 20cm이상은 거뜬히 넘을 듯한 선배를 보며 대답했다.

“종이는 거기에 두고 가면 되고, OT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야. 네 번호 말해주면 육상부 단톡방에 초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줄게. 더 궁금한 건 내 번호로 물어 봐.”

난 선배의 번호를 저장하고 인사를 한 뒤 그 적막한 방을 빠져나왔다.
그 날, 집에 오니 카톡이 와있었다.

‘5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육상부 모입니다. 장소는
새싹비빔고깃집입니다.’

OT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빵을 하나 꺼냈다. 빵의 절반에는
딸기잼을, 절반에는 망고잼을 바르고 반으로 접어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엄마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방에서 나왔다.

“일찍 일어났네?”

“응, OT가 있어서.”

“4시에 시작이라며. 휴일인데 좀 자고 쉬어.”

“아침에 육상 연습 좀 해야지.”

엄마가 어이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일주일동안 매일 했잖아.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 그러다가 몸 망가진다니까?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가 걱정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난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했다. 내가 열심히 달려서 잘 해보겠다는데, 왜 자꾸 막을까.
나는 하루라도 달리기를 쉬면 마음이 횡한 사막과 같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쉬는 나 자신에게 느끼는 피로움은 마치 뜨거운 띄약별에서
목이 바싹 마르는 느낌이었다. 뛰지 않으면 내가 가진 능력이 황폐하게
갈라진 땅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또다시 가뭄처럼 변한
마음을 느끼자 소리쳤다.

“아, 내 몸 내가 알아서 좀 할게!”

“너 엄마가 걱정하는데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면 돼?”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더 격앙됐다.

“그리고, 네 몸이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몸은 쉬어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젠 엄마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저 말을 벌써 백 번은 들은 것 같았다. 엄마의 큰소리를 더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이제껏 나는 내가 떨 수 있는 만큼 잘 뛰고 건강하게 살아왔다. 엄마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전부 다 무시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침부터 엄마와 말싸움을 하고 나니 가슴을 널빤지로 누르는 듯이 답답했지만 오늘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는 데로 눈을 돌렸다. 나는 원피스와 추리닝 두 개를 들고 고민하다 결심했다.

‘첫 OT니까.’

나는 단정한 분홍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머리는 풀어서 한두 번만 대충 빗고 립밤 하나 넣은 손가방을 맨 뒤 짐을 나냈다. 약속 장소는 학교 가는 길에 버스 창문 밖으로 자주 보이던 고깃집이었다. 고깃집 앞에 도착하니 유리 창문으로 식당 안이 투명하게 비쳐 보였고 볶음밥, 된장국, 김치찌개 등이 큼지막하게 인화된 사진으로 붙어있었다. 이 육상부는 어느 나이대로 모인 동아리길래 4시부터 고깃집에 온 걸까, 하고 감탄했다. 꼭 맞지 않은 신발을 신은 느낌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오니 동아리원으로 보이는 네댓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었고 회색 추리닝을 입고 까치머리를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목에 은색 호루라기를 걸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대번에 육상부 코치겠구나 하는 감이 왔다.

코치를 보고 나니 고깃집으로 모인 이유가 짐작이 되며 조용히 빈자리에 가서 앉았다. 처음 와 보는 이 식당도, 옆의 사람도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폰을 꺼내 메신저를 확인하는 동안 5분이 지나고 모임이 시작되지 않는 것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할 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졌다.

“재영아. 여기야, 여기.”

“재영 선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식, 하룻밤 사이에 키가 더 컸냐.”

남자애들은 팔을 흔들면서 반가워했고 팔 모양이 마치 뼈가 없는
문어 같았다. 여자애들은 행복한 눈으로 미소를 띤 채 차마 계속
선배를 쳐다보진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완전 모델 같아.”

“그저 빛이네, 빛. 우리 육상부의 간판이야.”

“학교의 간판이지.”

고개를 들어 보니 익숙한 얼굴이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재영이라는 선배는 모두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웃을
때 살포시 들어가는 보조개와 곡선을 지으며 올라가는 입꼬리가
예뻐보였다. 그 후 지루한 육상부의 기원과 활동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고기가 나왔다. 그다지 푸짐하지 않은 고기 양에 표고버섯과
팽이버섯만 가득한 걸 보고 입맛이 떨어졌다.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려고 하니 배터리가 없다는 알림이 뜨고 팟,
검은 화면이 되었다. 엄마가 충전하고 자라고 할 때 충전할 걸. 전날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충전을 못한 채 잠들었던 게 후회됐다.
나는 할 수 없이 폰을 내려놓고 대충 동아리 사람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열심히 고기 먹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 재영 선배가 내게
말을 걸었다.

“고기 안 좋아해?”

선배의 한 마디로 모두의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고기는 좋아하는데, 버섯이 있으면 잘 못 먹거든요.”

선배는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럼 고기만 골라서 줄게. 고기 좋아하는데 혼자 아무것도 안 먹고 있기 좀 그렇잖아.”

선배는 기어이 고기를 한 점 두 점 골라 접시에 담고는 내 앞에 놓아주었다. 옆에서 재는 손이 없어, 팔이 없어, 왜 선배한테 받아먹는 거야, 하고 애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별로 신경쓰이지 않았다. 나에겐 그 묘하고 특별한 배려가 부드러운 푸딩처럼 느껴졌다. 선배는 다른 애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는 기분 좋게 배를 채우며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갔다. 고기를 먹고 있는데 선배가 날 보고 또 말을 걸었다.

“김현아, 내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다.”

“아, 그런가요.”

뜬금없는 말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자칫 대답이 예의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선배가 말을 이었다.

“내 동생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네가 내 동생처럼 보여.”

나는 선배에게 눈빛으로 대답한 뒤 다시 고기를 먹는 데에 집중했다. 그런데 선배의 시선이 자꾸 느껴졌다. 한 시간 뒤, 불판이 모두 비워지고 나는 천천히 신발을 신은 뒤 애들 꿈무늬를 뒤따라 식당을 나왔다. 재영 선배는 앞에서 모두에게 배웅 인사를 한 뒤에 내 쪽으로 걸어왔다.

“많이 먹었어?”

“네.”

“그래, 조심히 가.”

선배는 마지막까지 여유 넘치는 미소를 보여줬다. 나는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다음번에는 되도록 왈자지껄한 사람들 틈에 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재영 선배가 떠오르자 저절로 미소가 나왔다. 그리고 육상부를 신청했던 처음보다 기대가 더 피어오르며 열심히 하고 싶어졌다. 나는 이런 내 모습에 놀라서 선배 생각을 털기 위해 머리를 가로챘고 이내 버스 창문에 기대어 얇은 잠에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깜깜한 11시였다.

한 달 뒤, 하늘의 구름이 해를 빠르게 앞질러가고 있는 날이었다. 머리 위로 구름과 바람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평화롭게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운동장 바닥은 오전 12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자, 오늘은 토끼뽀를 뿜 거다. 토끼처럼 뛰면 되는 거다. 안 어렵지? 자 그럼 1번부터 시작!”

육상부 코치는 만날 저런 식이었다. 매일 하는 연습도 신박하게 시켰다. 괴짜 같았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도 인터넷에 검색하고 나서부터 확신할 수 있었다. 여름인데도 빨강계 달아오른 코치의 콧볼을 보고 뒤에 서있는 아이들과 쿡쿡거리며 웃다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괴짜 코치님을 줬다. 유망한 선수였다면서 왜 토끼뽀를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등, 유망한 선수였으면 학교에서 이려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등, 그리고 이내 코치님의 코는 마치 퇴약별에서 익어가다 못해 말라 비틀어진 크랜베리 같다든지 하며 키득거렸다. 코치는 귀가 코딱지만해서 들릴 것 같지도 않았고 매사 아이들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 들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다. 귀는 잘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꼴에 자기 얘기 하는 건 알았는지 코치가 소리쳤다.

“아, 뭣들 허냐, 빨랑 빨랑 뛰가라!”

어중간하게 사투리를 섞은 걸 보니 당황한 것 같았다. 가끔 한두 번씩 이해할 수 없이 소극적인 코치는 소리치는 것마저 엉성했다. 그래서 코치가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싫어할 순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쪼그리고 앉아서 토끼뽀를 뛰기 시작했다.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다리에 쥐가 나고 감각이 없었다.

“자, 벌써 7시 35분이다, 다들 집에 가자!”

아이들은 거의 반쯤 기다시피 운동장을 뛰다가 코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마무리 구호를 외쳤다.

“오늘도 열정!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날 때는 다리가 아파서 주춤주춤 잘 일어나지 못하더니 어쩔 저렇게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지, 역시 퇴근이 만병통치약이었다. 모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남아서 운동장을 더 뛰기로 했다. 가볍게 몸을 털고 뛰려고 할 때 코치님이 나를 큰 소리로 불렀다.

“김현아는 잠깐 남아라!”

날 왜 부르는 거지? 나는 불린 이유를 찾으려고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그 사이에 코치는 운동장의 맨 끝에서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평소엔 도통 저 사람이 코치인 걸 못 느꼈지만 별 하찮은 상황에서만 코치의 걸음은 번개 같았다.

“김현아, 네가 기록이 가장 좋은 건 알고 있지?”

나는 묵묵히 코치의 얼굴을 쳐다봤다.

“우리 학교 애들은 2년째 기록이 없다. 그런데 네가 연습할 땐 가장 기록이 좋단 말이지.”

나는 괜히 운동화로 흙바닥을 직직, 긁었다.

“이번 대회는 토요일이니까 주일 예배가 없어서 참여할 수 있을 거고, 실전에서는 더 잘 할 수 있지?”

“.....”

“결과가 좋으면 너한테도 좋잖아. 잘 생각해봐.”

그 말을 하고 코치는 내 어깨를 가볍게 한 번 두드린 뒤 입을 열었다.

“내가 이번 대회에서 1등하면 스포츠양말 세트 선물로 줄게. 내가 신고 있는 거 나 중학교 때부터 있던 마라톤 동호회 건데, 착용감도 좋고 웬만한 브랜드 것보다 괜찮아. 이 양말 디자인 할 때 나도 참여했었어. 아, 마케팅만 잘하면 품질시킬 수 있는데, 아깝다니까.”

하여간 끝은 항상 자기 자랑이었다. 코치의 양말은 전혀 갖고 싶지 않았다. 카키색과 회색이 섞인 디자인은 냄새가 날 것처럼 보였다.

아마 이번 마라톤에서도 실적을 못 내면 학교에서 잘릴 수 있으니 내 우승에 저렇게 목을 매는 거겠지. 코치는 내 눈을 한 번 바라봤다.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지 동아리 때 보자, 라는 말을 하고 몸을 돌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실전에서 더 잘 할 수 있을까?’

운동화 끈을 고쳐 매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운동화 끈을 다 매고 일어날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몸이 쉬지 못해서 머리가 멍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았다. 운동장을 한 바퀴 뛰고 출발지점을 표시한 고깔이 보였다. 고깔을 돌아갈 때는 정신을 잡고 돌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속도를 줄이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뛰어가는 기분이 좋았고 ‘설마 다리가 꼬이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줄이지 않은 속도로 고깔을 돌아가는 찰나, 몸에 힘이 탁 풀리면서 넘어지고 말았다.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데 발목이 깨부쉘진 듯이 너무

아팠다. 주위는 급격하게 어두워졌고 나는 일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있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체감상 4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앉아 있는 시간이 지루하거나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운동장에 벌렁 누워서 높이 솟아 있는 나무 위의 참새들을 보았다. 참새는 나뭇가지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며 가지 위에서 퐁퐁, 뛰다가 멈춰서 동그란 고개를 까딱 움직였다. 그러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날갯짓을 몇 번 하더니 순식간에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다. 나는 참새가 점점 멀어져 점으로 보일 때까지 유유히 창공을 가르는 그 날갯짓을 바라봤다. 참새한테는 뛰라고 말하는 이도 없고 잘 뛰는지 지켜보는 이도 없었다. 참새는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점프하고, 날고, 누구보다 잘 뛰었다.

그 때 멀리서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반짝이더니 차가 운동장 쪽으로 돌진해왔다. 가까이 올수록 경찰차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학교엔 아무도 없고 경찰이 올 일이 없는데… 그럼 부모님이 날 찾느라 경찰차가 동네를 돌고 있는 거구나.

차 문이 열리고 경찰 한 명이 내려서 내 쪽으로 왔다.

“학생! 학생이 혹시 김현아야?”

나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내가 김현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경찰의 표정이 빠르게 바뀌었다. 안도하는 듯한 얼굴이었다가 인상을 쓰고 나를 쳐다봤다.

“학생, 신고 들어왔어. 부모님이 찾을 거라는 생각 안 해?”

“아….”

“여기서 왜 이려고 있는 거야?”

“발목을 빼었는데 못 건졌어요, 아파서.”

“아니, 발목을 어떻게 빼었길래 그래. 우선 일어나 봐, 부축해줄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힘겹게 걸어서 겨우 경찰차 안에 탔다.

경찰차는 생각보다 너무 아늑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가 투명 판으로 막혀 있었다. 출발한 뒤부터 경찰차 안은 쪽 정적이었다. 심심해서 창문 밖을 보았다. 동네의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며 낮선 건물들이 훑훑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건물들이 커다란 몸집으로 날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경찰차가 너무 빨랐기에 날 향해 으르렁대다가도 곧 내 뒤로 사라졌다.

나는 달리는 경찰차의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운동장에서 달렸던 날들과 그 첫날을 떠올렸다.

검푸른 안개가 낀 새벽 4시, 운동장에 도착해서 운동화 끈을 리본으로 깔끔하게 고쳐 댔다. 가볍게 체자리에서 세 번 뻥 후에 트랙에 서서 달리기를 시작했다. 새벽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별 생각 없이 달리는 걸 좋아한 건 오래 전 초등학교 때부터였지만 정말 오랜만에 머릿속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며 달렸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느낌은 하늘을 달리는 듯이 자유로웠다.

세 바퀴를 뛰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한 형체가 보였다. 키가 꽤 크고 스산한 모습이 기다란 유령처럼 보였지만 신경쓰지 않고 한 바퀴를 더 뛰었다. 한 바퀴를 모두 뛰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그 형체는 내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새벽에 뛰다가 유령과 안면식을 하게 되는 걸까, 큰 보폭으로 거의 미끄러지듯 빠르게 걸어오는 형체에 난 멈추지 않고 더 빠르게 반대쪽으로 달렸는데 순식간에 손목이 잡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반대쪽 손을 펴서 눈앞을 가렸다.

“악!”

“헉, 놀라지 마. 권재영이야, 나.”

내 앞의 사람은 내가 소리 지른 것 때문에 함께 놀란 것 같았다. 꿈속에서 듣는 듯, 근래의 기억 속에서 듣는 듯 낯설지 않은 목소리를 듣고 나는 손가락 사이로 앞의 사람을 확인하려고 했다. 조심스레 손을 때 보니 이털 수가, 유령인 줄 알았는데 재영 선배가 눈 앞에 있었다.

“아, 놀랐잖아요! 왜 저기서 가만히 서서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고 소리를 쳤지만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제서야 재영 선배의 놀랐던 눈이 점점 반달처럼 휘어지며 내가 똑바로 서있을 수 있도록 팔로 지탱해주었다.

“괜찮아?”

“네, 누구 때문에 넘어져서 저 세상 갈 뻔했다가 누구 때문에 다시 이생으로 돌아왔네요.”

선배는 그제서야 안심했는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미안해,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어. 나도 뛰려고 나왔다가 누가 이 새벽에 뛰는지 싶어서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아직도 콩닥대는 심장을 추스르려고 숨을 한 번 내뿔었다. 놀라서 그런 건지, 눈 앞에 재영 선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다. 선배는 내 진정한 얼굴을 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떨래?”

나는 허리를 곧게 펴며 대답했다.

“네.”

선배는 내 옆에서 내 속도를 맞추어 뛰었다. 둘 다 앞만 보고 뛰었다. 다섯 바퀴쯤 뛰었을 때 재영 선배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스탠드로 가서 물병을 가져와 내게 건넸다. 나는 얼른 물을 받아 마시고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선배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 밑으로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지어졌다.

“뭘 만해? 다섯 바퀴 더 뛸 건데.”

“네.”

우리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함께 뛰었다. 사흘째에는 선배가 타이머를 들고 와서 내 기록을 재주고 나도 선배의 기록을 재주었다. 달릴 때 선배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훑날리고 깊은 눈매 속으로는 검은 눈동자가 빛났다. 지칠 법도 한데 처음과 같은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 선배에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새벽에 심장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며 계속 뛰었다.

우리 집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엄마가 얇은 옷 위로 간단한 외투 하나만 걸친 채 현관문에서 뛰어나왔다. 발목이 아까보다 더 빠근하고 시큰거렸지만 정신을 꼭 붙들고 경찰차에서 내리려고 했다. 내리는 순간 내 발목은 바깥쪽으로 돌아갔고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절뚝거리는 날 보고 엄마가 경찰차 앞까지 종종걸음으로 다가왔다.

“김현아!”

나는 엄마의 부축을 받아서 집까지 들어왔다. 방 안에서 엄마가 복잡한 표정으로 내 발목을 가만히 바라봤다. 내 발목에는 얼음팩을 감싸고 있는 흰색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발 옆에는 얼음 주머니와 2가지 종류의 물과스가 있었다.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틀 뒤면 대회인데 불길하게…”

“치료하면 낫겠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있어.”

엄마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했겠지만 내 마음은 하나도
괜찮아지지 않았다. 치료하면 물론 낫겠지만 이번 대회는 이번
뿐이니까. 그래서 난 괜히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이번 대회는?”

“못하는 거지, 그 발목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툭툭
부었는데, 쉬어야지.”

나는 발목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날 엄마가 찾은 관절 전문 병원에 갔다. 초등학교 때 건강검진
받은 후로 정말 오랜만에 오는 병원이었다. 이제껏 팔팔하게 뛰면서 잘
살았는데 큰병원이라니. 돌이켜 생각할수록 잘못 뼀 나 자신이
한심했다. 팔에 깁스하고, 다리에 깁스하고,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여길 봐도 저길 봐도 환자들밖에 없었다. 중요한 대회를 앞둔 선수로서
쪽팔렸다.

“김현아님, 들어가실게요.”

간호사로부터 내 이름이 불리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나는 의사의
권유대로 MRI를 찍은 뒤에 병실로 올라가 쉬었다.

“만성 인대 파열입니다.”

의사는 MRI를 보더니 만성 인대 파열이라고 했다. 나는 적잖이
충격을 먹었다. 아픈 정도로 봤을 때 파열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측은
했지만 만성이라니. 어릴 때부터 발목을 많이 접질렸고 중학생 때
육상을 시작하면서 접지르는 빈도수가 늘긴 했지만 만성 인대 파열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럼 육상은? 곧바로 육상 생각이 스쳤다. 육상을
못하면 나에게 뭐가 남는 거지?

어둡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한데 뭉쳐 몸에 불이 훗훗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진찰실을 나오니 식은땀으로 손이 흠뻑 젖어있었다. 병실로 올라가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육상은? 곧바로 육상 생각이 스쳤다. 육상을 못하면 나에게 뭐가 남는 거지?

“엄마, 나 그럼 육상은 어떡해?”

“일단 쉬고 건강 챙겨야지.”

“나 벌써 뛰고 싶은데.”

“그만 좀 해! 너한테 그런 말을 듣는 엄마 마음은 어땠겠어?”

나는 엄마에게 괜히 소리쳤다.

“엄마 내 마음 모르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는 화를 참는 듯한 얼굴로 날 보고 나서 거친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갔다.

기분 나쁜 소리에 병원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회색빛으로 흐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앉아 퍼붓는 비를 잠자코 바라봤다. 빗소리는 유쾌하지만 편안하지 않았다. 빗소리는 맑았지만 들을수록 우박같은 것이 내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았다. 비가 바람을 몰면서 아주 매섭게 내렸다. 우산을 쓰지 않고 저 빗속에서 있으려고 하면 곧바로 고꾸라질 것 같았다. 나는 차라리 맨몸으로 저 비를 맞고 싶었다. 비를 맞고 나면 내 마음의 응어리도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비가 내리니 점점 더 쭈셔오는 발목을 부여잡았다.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난 내가 울고 있는지도 몰랐다. 눈도 입도 가만히 있는데 눈물만 흘렸다. 나는 알 수 없는 어둠에 갇혀버린 심장을 파내고 싶었다.

그 후로 나는 답이 없는 걱정 빼고 아무 생각 없이 창문 밖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만나질 이상을 누워서 매일 똑같은 병원 천장을

올려다보니 천장에 케케 목혀서 붙어있는 검은 먼지 자국의 모양을 다 외워버렸다. 그 무늬가 꿈에서도 나올 것 같았다.

“김현아, 죽 먹어.”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쓴 약을 먹어야 하니 한숨이 나왔다. 나는 죽그릇만 보면 울렁거리고 진절머리가 나서 토할 것 같았다.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럼 뭐 할래?”

“걸고 싶어.”

“.....”

“뛰고 싶어.”

난 특하면 엄마에게 바깥에 나가 달리고 싶다고 즐랐다. 불가능한 일이기에 엄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떼를 썼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학교 가고 싶어.”

결국 엄마는 한 달 만에 어둡고 켩한 눈으로, 내가 학교 가는 것을 허락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교실로 들어가기 전 맨 먼저 운동장부터 찾았다. 흙먼지 냄새와 학교 특유의 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반가웠다. 이 너른 모래밭에 오니 비로소 내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병원에 있던 시간은 무려 세 달이었지만 운동장에서 트랙을 따라 뛰던 날들과 멈추지 않고 달리던 그림자가 마치 옛그제인 것처럼 눈앞에 그려졌다. 출발선 앞에 서서 발목을 스트레칭하기 위해 크게 돌렸는데 짜르르, 통증이 올라왔다. 제자리에서 몸을 풀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터치하는 게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다. 입이 병쩍 있는 재영 선배였다. 선배를 오랜만에 보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김현아, 괜찮아? 다리가 어떻게 된 거야?”

“만성 인대 파열이래요.”

“육상은 할 수 있어? 너랑 같이 대회 진출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 말에 주저없이 말했다.

“꼭 낮고 말거야.”

하지만 말끝에서 물기 어린 목소리를 감추기는 쉽지 않았다. 선배와 운동장을 뛰던 기억이 스쳐가며 머릿속에 윤이 나는 금상 트로피와 붕대를 칭칭 감은 내 발목이 곁졌다. 잠시 바닥으로 시선을 떨켰다가 선배의 눈을 살피니 선배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그런 마인드 좋아.”

선배의 말은 마른 땅 같던 내 마음에 큰 힘이 되었다. 만성 인대 파열이라는 말을 들은 뒤로는 회복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선배의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긍정의 힘이 솟아났다. 무너져내릴 상황에서도 많이 웃다가 종종 불치병이 고쳐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떠올랐다.

6시 30분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날마다 하던 성경 QT를 하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 일찍 깬어.”

“더 자지 그래.”

“아냐.”

“아침 먹을래?”

“입맛이 없어.”

엄마는 한숨을 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내 감정을 잘 모르겠다.

나는 욕상을 할 수 없어서 온몸이 근질거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육신거리는 발목에 인상이 구겨지는 날이 많았다. 서있을 때도, 걸을 때도, 누웠을 때도 아파서 발목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다. 게다가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못 찾아 이곳저곳 들렀던 병원만 5군데였다. 아침부터 아침밥을 차리고 옷을 입고 무척 분주한 엄마를 보고 물었다.

“오늘 또 새로운 병원에 가?”

“응.”

나는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나 너무 지쳐.”

“그럼 어떡해, 나올 수 있는 거면 뭐든 찾아봐야지.”

“만성이랬잖아.”

“그래도… 좀 더 나은 병원이 있을 거야, 현아야.”

다음날, 나는 엄마가 찾은 병원으로 나섰다. 이번 병원이 마지막이 되게 도와달라고, 인대가 나올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있다면 큰 소망으로 바꿔달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의사가 MRI를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인대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정상에 가까워요.”

“그럼 왜 아프다고 하는 거죠?”

엄마가 한숨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CPRS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성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외상 후에 몸이 낫고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외상 후 신경이 예민해져서 뇌에 끊임없이 아프다는 인식을 보내게 되고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프겠지만 병원에서 운동치료를 계속 해줘야 근육이나 인대가 본질을 잊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의 얼굴이 기쁨으로 꽃피었다. 아마 나도 엄마도 천년 체한 것 같던 게 내려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우선 저희 병원의 옆 건물인 재활치료센터로 가서서 재활치료를 받으면 좋아지실 거예요.”

“네. 다행이다, 현아야.”

매일 발과 발목이 부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하지만 이제 별 문제가 아니었다. 인대가 더 나빠질 일도 없었다. 고통은 운동치료를 받으며 아프지 않다고 세뇌시키면 해결될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만성 인대 파열이 아니라서 곧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재활치료센터’ 라는 간판이 눈에 확 띄었다. 아주 오랜만에 잡는 엄마 손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식물들이 가득했다. 실내였는데 놀랍게도 향긋한 레몬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복도와 계단, 벽 등 모든 곳에 초록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엄마를 따라가서 내가 머물 병실에 짐을 내렸다. 병실 안의 침대와 창문은 단출했다. 창문에는 연보라색 커튼이 달려 있고 전등은 샹들리에처럼 화려해서 혼자 튀었다. 그리고 방 안을 무진장 환하게 비췄다. 환자를 억지로 밝게 만드려는 속셈인가. 병실은 그럭저럭 살만 했지만 격리되어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싫증이 났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침대 머리맡 받침과 문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었다. 그러면서 병원비는 엄청 뜯어가니 저런 건 다 빈말 같았다.

이삿짐처럼 많은 짐을 겨우 다 정리하고 흘러내린듯이 침대에 앉았을 때 병실 전화기가 울렸다. 나는 엉덩이를 붙인 지 1분 만에 오전 치료를 받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했다.

가는 길에서 완두콩을 처음 만났다. 첫인상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다. 완두콩은 냉소적이고 까칠했다. 검정 타이즈와 대비되는 커다란 연둣빛 후드티를 뒤집어쓰고 내가 걷는 복도를 마주쳐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완두콩처럼 보였다. 완두콩은 왼쪽 팔을 흔들며 다람쥐처럼 날쌔게 걸어서 금세 가까이 걸어왔다. 그리고 과일처럼 상큼한 섬유유연제 향이 섞인 바람을 일으키며 내 옆을 지나갔다. 완두콩의 오른팔에 딱딱한 보호대가 채워져 있는 걸 보고 팔 인대 파열이거나, 뼈가 부러졌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자판기에서 오렌지 주스를 하나 뽑으려다 두 개를 뽑게 되었다. 병원 옥상으로 가는 길이어서 할 수 없이 하나는 마시고 하나는 손에 들고 올라가고 있었다. 옥상에 다다르니 완두콩이 벤치에 앉아서 팔을 들고 보호대를 째려보고 있었다. 완두콩을 보니 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나보다, 하고 감이 왔다. 보호대를 언제 푸는지, 언제 낫는지 답답해하고 있겠지. 내가 왜 다쳤을까, 하고 화가 나 있겠지. 완두콩은 여전히 팔을 째려보고 있었다. 움츠린 작은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너무 처량했다. 나는 조금이라도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와서 완두콩에게 말을 한 번 붙여봐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슬그머니 다가갔다.

완두콩은 날 보고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좀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고 나한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럴 만도 했다. 병원에 있으면서 사람이 여유가 있을 수 있나, 기쁨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나는 말없이 완두콩의 눈앞에 오렌지 주스 하나를 들이밀었다. 캔 병 위로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서 아직 꽤 시원해 보였다. 완두콩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 손에서 오렌지 주스를 가져갔다. 날이 굉장히 후덥지근했기 때문에 시원한 주스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너 옥상엔 몇 시쯤에 와?”

완두콩은 오렌지 주스 뚜껑을 까다가 멈췄다. 여전히 날 쳐다보지 않고 앞의 허공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왜 궁금한데?”

“나중에 심심할 때 같이 주스라도 마시면 어떨까 해서.”

“남이사.”

“뭐 하든 말든?”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아서 날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났다. 완두콩이 혼자 웃고 있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나는 웃음이 조금 잦아든 뒤에 말을 이었다.

“너 여기 다닌 지 얼마나 됐어? 나 오래전에 너 봤는데.”

완두콩이 눈썹을 살짝 올리고 내리더니 날 바라봤다.

“언제?”

완두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동글동글한 눈도 완두콩 같았다.

“나 여기 온 첫날이니까 6월 5일 일 걸.”

“.....”

완두콩은 눈동자를 도르르 굴리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내 쪽으로 액정을 향한 채 폰을 만지작거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화면을 보게 되었다. 완두콩은 갤러리에 들어가 사진 여러 장을 한 장 한 장 유심히 봤다. 조출한 병원 책상 위의 조출한 케이크 사진, 그리고 안 다친 팔로 케익을 한 조각 떠올리고 있는 완두콩의 사진.

“네 생일이 6월 5일이었나봐?”

“응.”

완두콩은 갤러리를 다 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정면을 응시했다. 이쯤 되면 하루 중 대부분을 멍때리고 사는 것 같은데 멍때리는 게 취미인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오늘은 이쯤 하자, 라고 생각한 나는 완두콩이 혼자 있을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서너 걸음쯤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오렌지 주스가 입맛에 맞았는지 이미 다 먹어서 찌그러진 주스 팩에 빨대를 빼지 않고 계속 쪽쪽 빨고 있는 완두콩의 뒷모습이 꽤 귀여웠다. 세 걸음을 더 가고 옥상 출입문에 다다랐을 때에도 꾸르륵, 주스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명쾌하게 들렸다. 옥상 계단을 내려가 병실 앞에 도착할 때까지 생각했다. 완두콩을 만나러 가는 거리는 멀지 않다고. 나는 완두콩을 친구로 삼고 싶다는 생각에 이 정도 수고가 전혀 귀찮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날, 나는 심심해서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염없이 걷다가 한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연두색 가디건이 문 손잡이에 대충 묶여있는 것을 보고 대번에 완두콩의 병실임을 알 수 있었다. 내 병실 옆의 옆의 옆 병실이었다. 병실 문 앞의 이름표를 보니 ‘101호 이유라’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완두콩의 이름이 ‘이유라’인 것 같았다.

나는 병실 안으로 돌아와서 늘 그렇듯 병원 조식을 먹고 서둘러 옷을 입은 뒤 책을 몇 권 챙겨서 완두콩을 만나러 갔다. 노크를 두 번 하고 완두콩 병실 문을 여니 완두콩은 병원 침대에서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멍때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완두콩의 맞은편에 있는 나무의자에 앉아서 여유롭게 책을 펼쳤다. 책 한 권을 읽을 동안 우리 사이에 대화는 없었다. 두번째 책을 집어들고 펼쳤을 때도 우리는 각자 할 일에 열중했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하늘색 체크 무늬 커튼이 앞으로 뻗어서 흔들렸다. 솔솔 부는 바람이 얼굴에 느껴졌다. 6월달 배달책자에

그려진 짜장면, 탕수육, 치킨, 피자, 곱창, 족발 등을 정독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각자가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이제껏 아파서 음식 생각을 해도 입맛이 없었는데 배달 책자를 볼 때 입맛이 마구 살아났다. 그리고 어차피 달리기를 못 하니까 한번쯤 기름기 많고 고열량의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었다. 배달책자를 끝 페이지까지 다 보고 TV에서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에 눈길을 돌렸다. 연예인들이 이마에 달걀과 날달걀을 랜덤으로 까는 것을 보고 완두콩도 웃고 나도 웃었다. 예능 출연자들이 오리발을 끼고 뒤통뒤통 달리는 장면에서 내가 웃을 때 완두콩도 웃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란 다이빙대 위에서 온몸으로 슬라이딩하다가 수영장에 빠질 때 우리는 배꼽 빠지게 웃어댔다. 무언가 말을 걸어야 하거나, 뭔가 채워줘야 하지 않았기에 마음에 편안했다. 자그마치 6시간이라는 긴 정적을 갠 건 나의 질문이었다.

“이유라,”

유라가 TV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처음 이름을 불러서 놀란 얼굴이었다. 그 뒤 병실 이름표가 복도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는지 유라는 다시금 잠잠한 표정을 유지하며 나를 바라봤다.

“병원 밥 매일 먹는 거 질리니까 치킨 시켜 먹을래?”

내 말을 듣고 유라가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럼, ‘구웠네 치킨’ 집에서 시키자. 내 팔 인대가 나으려면 기름기를 조금만 섭취해야 해서.”

나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구웠네 치킨 좋지.”

그제서야 유라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은 반반씩 하자.”

“응.”

나는 다시 배달 책자로 눈을 돌리고 유라는 TV에 시선을 고정했다. 결눈질로 보니 유라는 클래식 채널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별로 접해본 적이 없어서 낯선 바이올린과 첼로 소리가 내 귀를 두드렸다.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악기들의 소리가 정적 속에서 청아하고 깊이있게 울리며 병실 안을 가득 메웠다.

‘배달이요.’

한 시간 뒤, 무심한데 가장 설레면서 익숙한 말투가 들렸다. 유라는 서둘러 치킨을 받으러 가고 나는 재빨리 멀쩡한 두 팔로 구석에 있던 접이식 밥상을 가져와 병실 중앙에 설치했다. 유라가 한 팔로 치킨을 받아오는 걸 보고 나도 서둘러 가서 함께 들고 왔다. 내 팔로 치킨 박스의 무게가 옮겨가자 유라가 나를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치킨을 들고 올 때 유라는 한 쪽 팔로 내 쪽에 의자를 놓는 동시에 다리를 뺀어서 자신의 앞에 의자를 끌어와 놓았다. 우리는 치킨 박스를 열고 치킨무와 소스를 세팅했다. 구웠네 치킨을 한 입 베어먹자 고소한 맛과 바삭바삭한 튀김옷이 입 안을 지배했다. 매콤한 맛과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 합작을 이뤘다.

“이게 얼마만에 먹는거야!”

유라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너무 맛있다. 행복해!”

우리는 치킨 닭다리를 하나씩 들고 열심히 뜯다가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이 터졌다. 마치 굶주린 사람들 같았다. 병원 석식을 한 끼 취소하고 치킨을 먹는 것은 묘한 승리감과 성취감이 들었다. 치킨 그 자체의 맛으로 치킨은 구원의 식량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후로 나는 삼일에 한 번씩 유라의 병실에 들렀고 유라와 반갑게 인사할 만큼 시간이 쌓이자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갔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옆에 있으면서 서로의 온기와 편안한 호흡을 느꼈다. 점심 식사를 옆에서 같이 먹고 치운 뒤 유라가 일어나서 캔버스, 팔레트, 붓 등 미술 용품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유라가 채우는 캔버스의 그림을 가만히 봤다.

“그림 꽤 잘 그린다.”

“엄마가 미술 선생님을 하시고 이모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 심리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계셔.”

“그런데 네가 그리는 그림은 뭔가 다른 것들보다 특별한 것 같아.”

“어떤 면이?”

“처음 보는 색조합이야. 팔레트에서 전혀 정반대 색깔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보색으로 잘 어울려. 심지어 너무 예뻐.”

“으응.”

유라가 살짝 웃었다. 나는 유라의 그림을 보면 볼수록 궁금해서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졌다. 난 호기심 같은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라의 그림은 처음으로 내 관심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네가 그리는 그림의 형태도 신기해. 무슨 기법이지?”

유라가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그럴 거라는 듯 말했다.

“모자이크도 아니고 수채화도 아니고?”

“맞아, 물감을 그냥 쏟아부은 것도 아니고. 뭘 그리는 거야?”

“이모 센터에서 배운 그림 기법이야. 내 심리 상태 그대로 선, 도형, 색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네 꿈도 미술가야?”

“아니, 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악 심리 치료사가 될거야.”

“치료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몸이 불편한 아이들,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많잖아. 우리도 고민이 가득 차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아이들이 마음 안쪽에서부터 시원하게 목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 난 그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내키는 대로 음악을 연주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으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니?”

유라는 음악 심리 치료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을 할 때 유라의 눈에 알 수 없는 힘과 열정이 담겨서 또렷하게 빛났다. 내가 빛나는 눈을 가진 적이 언제였을까… 아무 걱정 없이 운동장을 달리던 초등학교 때 이후부터는 그런 눈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나를 위해서만 달렸는데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꿈을 꾸는 유라가 멋있었다. 누구나 유라와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행복할 것 같았다.

다음날, 유라의 병실 앞에 다다를 때였다. 등 뒤의 엘리베이터에서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렸다. 어깨가 딱 벌어진 남자와 그 옆은 왜소한 몸집에 하늘색 꽃무늬 가디건을 걸친 여자였다. 부부와 내가 같은 병실 문을 열려는 걸 알았을 때 여자가 날 보고 미소를 지었다. 병실에 들어가니 유라가 침대에 앉아있다가 내 얼굴을 본 뒤 부부의 얼굴을 봤다. 유라는 부부의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태양처럼 환하게 웃었다. 여자는 손에 들고있던 삼단 도시락을 책상에 올리고 차례차례 케이스를 벗긴 뒤 정갈하게 배치했다. 유라에게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입은 일자로 굳게 닫혀 있었고 금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 뒤의 날카로운 눈매와 강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유라가 남자를 올려다보고 아빠, 하고 불렀다.

“집에 못 가고 병원에만 있어서… 죄송해요.”

“…알면 빨리 낫기나 해.”

유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십 년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건조했고 말투는 무심했다. 하지만 유라는 밝게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유라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 병원 밥 싱겁다고 거르는 거 아니냐?”

유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잘 먹고 있어요.”

유라의 아버지가 대답을 듣고서 뒤돌아섰다. 유라의 어머니는 유라를 꼭 안았다. 유라는 두 팔을 벌려 엄마를 감싸안은 뒤 천천히 떨어졌다.

유라의 어머니는 내 쪽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학생도 완쾌하기를 기도할게요.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유라랑 잘 지내요.”

유라의 부모님이 나가시고 문이 닫힌 뒤에 유라에게 물었다.

“아빠 말에 어떻게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어?”

“좀 무뚝뚝하지?”

“아빠가 어릴 적에 따뜻한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보셔서 그래. 하지만 아빠는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날 걱정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빠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유라가 말을 이었다.

“오히려 죄송하지. 걱정시켜드려서.”

그 말을 듣고 괜히 머리카락을 꼬며 시선을 떨궜다. 나는 엄마에게 툭하면 아프다고 짜증을 냈는데 유라는 달랐다. 유라 어머니의 꾸밈없이 순수한 웃음은 한 곳에 있는 모두를 감쌌고 유라와 아버지는 서로가 따뜻하게 화답하는 것 같았다. 그 맑은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내 불평을 담담하게 다 받아주었던 엄마가 떠올랐다. 축축했던 엄마의 눈이 생각나고 가슴에 화살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지금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했다.

유라의 병실에 찾아가니 유라는 클래식 채널을 보고 있었다. 빠르고 화려한 교향곡이 귀를 두드리자 신나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다. 유라는 첼로 멜로디에 맞추어 마치 허공에서 첼로의 지판을 잡은 듯이 프로페셔널하게 왼쪽 팔을 움직였다.

나를 보고 유라가 말했다.

“아침 일찍부터 왔네.”

나는 눈빛으로 대답한 뒤에 말을 꺼냈다.

“유라야, 나 이틀 뒤에 퇴원해.”

그러자 유라는 기쁜 목소리로 이야, 하는 소리를 냈다.

“정말 잘됐다. 그럼 이제 학교에 가는 거야?”

“응.”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뭘 할 거야?”

“운동장에서 달리려고.”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총알처럼 대답이 튀어나왔다. 운동장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라는 정말 좋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몇 바퀴 뛴 건데?”

“열 바퀴.”

그러자 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뛰다가 아프면 바로 쉬고. 뛴 수 있을 만큼만 뛰다가 점점 늘려가야 다시 병원에 올 일이 없을 거야.”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치료가 잘 돼서 다행이다.”

“네가 옆에 있어준 덕분이야.”

유라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콜라겐 매일 챙겨먹어. 인대 회복에 좋아. 되도록 식물성 콜라겐으로 먹고.”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유라의 밝은 웃음을 보고 싶을 것 같았다. 씩씩한 유라의 목소리도 그리울 것 같았다.

“넌 언제쯤 퇴원해?”

“난 내년 5월달쯤에 퇴원할 것 같아. 그런데 네가 나온 걸 보니깐 나도 더 빨리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유라에게는 지켜운 시간이 앞으로도 너무 많이 남아있었다. 나는 끄응, 하는 답답한 소리를 냈다.

“병원에서 뭘 할 거야?”

“지금처럼 그림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지낼 것 같아. 나는 팔에 수술 자국이 아물고 나면 ‘사랑’이라는 라틴어 문구가 적힌 금색 팔찌를 찰 거야.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면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에 음악을 들려주고 밝은 빛을 비춰주는 상상을 해.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

나는 말없이 유라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유라는 전혀 우울해하지 않았다. 억울해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유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안도가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안 다치도록 기도할게.”

“고마워, 유라야.”

나는 얼마 동안 유라의 손을 꼭 잡고 있다가 병실을 나왔다. 창문 밖으로 새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유난히 파란 하늘이 머리와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 같았다.

내 병실에 돌아와서 코치에게 카톡을 보냈다. 답장을 기다리며 육상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새로운 소식들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서 본 코치의 답장은 새로운 육상 대회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대회에 나갈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맑고 파란 하늘의 품 안에서 구름이 유유히 달리고 있었다.

‘빠이익-’

운동장에 경쾌한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 더워서 쓰러지겠다. 아니, 좀 있으면 또 쌀쌀해진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 걸리지 말고, 다들 얼른 가라!”

“오늘도 열정!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미꾸라지처럼 순식간에 운동장을 빠져나간 뒤 나는 깨끗이 비워진 운동장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향해서 양팔을 벌렸다.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내 얼굴을 비췄다. 빛을 피하려고 해도 운동장 전체에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타이머의 기록, 대회의 수상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러자 선선한 바람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발이 가는 대로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맞붙어오는 가을 바람이 발목을 쓰다듬어 주는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 차고 있던 족쇄를 벗어던진 듯이 다리가 가벼웠다. 그 순간은 하늘을 누비는 새도 부럽지 않았다.

“와-아!”

입에서 환희에 찬 소리가 터져나오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저녁 7시가 훌쩍 넘으니 보슬비가 내리고 상쾌해진 공기가 내 땀을 말려주었다. 나는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노란 은행잎이 깔린 도로를 달렸다. 은행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날아와서 내 옆의 창문에 붙었다.

그 옅은 투명한 빗방울을 달고서 샛노란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나는 은행잎이 얹은 창문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 빨간 단풍들이 하늘거리며 춤을 췄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스포츠신문을 보며 접시 속의 딸기 꼭지를 따서 입에 넣었다.

‘이유라, 뭐 하고 지내?’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답장을 얼른 받고 싶어서 안절부절못했다. 2시간 뒤 유라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랜만에 전화할래?’

나는 뭘 듯이 기뻐했다. 신호음이 두 번 가고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현아,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고민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뭔지 말해봐.”

누구보다 먼저 내 마음에 귀기울여주는 유라 덕분에 눈물 대신 하고 싶은 말들이 쏟아져나왔다.

“나 발목 통증이 안 사라져서 힘들어.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지금은 학교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안 아픈 척 하면서 지내는 것도 좀 서럽고...”

유라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평생 그럴 건 아니잖아.”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안 낫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평생 마음이 슬프지 않을 거야. 평생 암흑 같지 않을 거라고. 그 우울한 마음도 반드시 지나가.”

나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 그 후로 아프지 않을 때는 감사했다. 그리고 아플 때는 아끼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나를 달랬다. 괜찮다고,

난 아프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전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하지만 늘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을 뛰었다. 나는 기적처럼 날마다 나아지고 있었다.

카톡, 재영 선배에게서 카톡이 왔다.

‘우리 토요일에 같이 야구 보러 갈래?’

“좋아.”

나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대로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서 답장을 보냈다. 포근한 침대에 몸을 던진 뒤 푸르른 잔디가 넓게 펼쳐진 야구장을 상상했다. 나는 폰을 켜서 야구장 옆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검색했다. 먹음직스러운 파스타와 피자 사진을 보니 군침이 돌았다. 재영 선배가 내 앞에 함께 있을 걸 생각하니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때 방 문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김현아,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

엄마가 양팔을 넓게 벌리고 솔만한 큰 세숫대야를 들고 와서 내 발 앞에 놓았다.

“그냥 좋아.”

엄마가 의아하다는 듯이 잠시 날 보더니 소매를 걷어부쳤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며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서 천천히 저었다. 엄마는 물을 크게 열 번 저은 뒤에 내 바지를 집어서 걷어올리고 대야 안에 내 발을 하나씩 넣었다. 물에 흠뻑 젖고 연한 선홍빛으로 빨개진 엄마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엄마를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그 손을 꼭 그러쥐었다. 엄마가 내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왜 손을 잡아?”

엄마의 눈이 아름다운 소녀의 눈처럼 예뻐다. 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엄마가 좋아서.”

“애는.”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네가 빨리 낮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물은 천천히 식으니까
15분동안 족욕하고 있어.”

엄마는 그렇게 말한 뒤 일어나 방을 나갔다. 나는 문 밖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정말 많이.”

나는 나중에 엄마의 눈을 보고 이 말을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그 때
떠렁, 유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나아지는 중이라니 다행이야,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아프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

오랜만에 유라가 보고싶었다. 한 달 뒤 여름 방학이 되면 꼭 유라를
보러 101호를 찾아 가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따뜻한 물의 온기가
발부터 심장까지 감싸주는 걸 느끼며 천천히 발을 들고 새털처럼
가볍게 물장구를 쳤다. 찰박, 찰박. 물방울들이 춤추듯이 튀어올랐다.